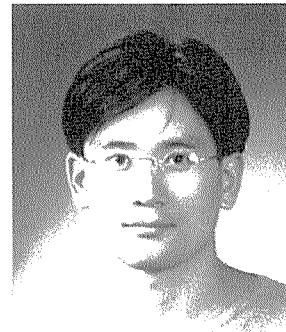


환절기 양계호흡기질병 예방

호흡기 질병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가!



정 찬 이 (주)고려비엔피 양계PM

○] 일 기온변화가 심해지는 환절기가 되면 약 근 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호흡기예방치료용 약품판매가 증가되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반면 사육농장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호흡기 전용예방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본사 또한 호흡기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매년의 추이를 볼때 환절기를 기해 호흡기 예방치료제의 사용 증가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환절기 호흡기 질병예방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사항은 시설적인 면에서의 보완이다. 시설적인 면이란, 일일 기온변화를 최소화시키는 시

설을 의미하며, 시설이 미비한 농장의 경우는 일일 기온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계군의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어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사육밀도가 올라가게 되어 밀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보온을 위한 환기량 부족으로 인한 공기질의 저하로 계군들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 생산량조절 기능을 하는 계절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사에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사양관리는 농장경영자분들이 더 잘 아시는 내



용이라 생각하여, 질병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걱정되는 것은 올해의 질병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예상이 빗나가기만을 바라지만, 심각한 질병발생에 의한 생산성 저하가 예상이 되어 각별히 차단 방역에 온 정성을 쏟아야 될 것이다.

호흡기질병을 유발하는 원인균을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ORT, 대장균, 바이러스로는 뉴캣슬병 바이러스, 전염성기관지염 바이러스 등을 들 수 있다. 곰팡이 또한 호흡기질병을 유발하며, 농장 내에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는 직접적인 호흡기 증상을 유발시키게 된다. 너무나 고전적인 질병 원인체이기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예방백신에 의한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으므로 백신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호흡기질병원인체중에 가

장 천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코플라즈마이다. 마이코플라즈마 자체로는 생산성저하가 크게 나타내지 않아, 이른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살모넬라감염, 뉴캣슬병, 전염성기관지염, 감보로병 등에 의해 아주 등한시 되고 있다.

살모넬라감염, 뉴캣슬병, 감보로병 등은 직접적인 폐사를 동반하는 질병인 만큼 농장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경제손실을 유발하는 질병예방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으나, 마이코플라즈마는 거대한 제방에 조그마한 구멍과 같아 그것을 방지했다가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게 된다.

마이코플라즈마는 대표적인 난계대성 질병이며, 야외조건에서 생존기간이 길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소독제에도 쉽게 사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기도점막에 중식을 하게 되어 환경변화가 심하게 되거나

| 특집 · 양계장 청정화를 위한 질병예방 대책 |

나, 호흡기친화성바이러스가 동시 감염시에는 방아쇠역할을 하게 되어 호흡 기도를 심하게 파괴시켜 호흡 기도를 통한 무차별적인 병원균침입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원인체이다. 일반적인 약제에 대해 감수성을 보이고 있으나,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수성이 높고 마이코플라즈마 증식부위에 축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약제가 있다. 약제 투여 후에 혈중에는 거의 남지 않아 장내세균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장에서의 소화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감염부위로 약제가 이동하여, 특정병원균인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살상작용만을 나타냄과 동시에 10일이상의 치료농도 유지로 근원적인 질병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약제의 올바른 투여시 타액제에 의한 투여보다도 훨씬 높은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틸미코신제제는 난계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입추시 투여법과 육계의 경우 육성증반기 투여를 통한 후기 호흡기질병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보다 높은 생산성을 유도하게 된다. 산란계나 육용종계의 경우 5주령 전후 투여와 시산 전 투여를 통한 호흡기 원인균의 사멸을 통한 산란생산성의 증대를 이끌어준다.

눈에 보이는 질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인균의 올바른 근절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틸미코신제제를 사용하는 농장에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만큼 전세계적으로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사용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치료 및 예방효과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서 항생제의 적은 투여횟수로 안전축산물생산 및 생산

성증대를 이루었으면 한다.

양계농장에서흔히 볼 수 있는 광범위 퀴놀론제제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퀴놀론제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용을 통해서 퀴놀론제제에 대한 내성발현이 증가되었으며, 질병진단업무의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도 잔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해명은 미약하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보다 안전한 축산물섭취를 원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계란의 잔류, 계육의 잔류 등의 문제가 점점더 커지고 있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양계의 유전적 생산성은 증대가 되었으나 항병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피해가 있어 항생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앞으로의 양계산업은 유전적 생산성의 증대가 아니라 항병력이 우수한 개체의 선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단위면적당 인구수도 많으면서 양계밀도도 높게 나타나 일인당 섭취하는 항생제도 많고, 양계 한마리당 먹는 항생제의 양도 많이 나타난다. 앞으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설환경의 보완과 사육밀도의 적정유지가 필수조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꾸준한 양계 생산성을 위해서는 일일온도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보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약제의 사용을 통해서 호흡기유발원인균의 차단 및 박멸로 환절기마다 반복이 되는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환절기는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절기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연중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모색했으면 한다. **[양계]**